

2010년 7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1,154조회)

깊이 바라보기
深く眺めること

깊이 바라보는 것은
深く眺めることは

우리에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私たちに理解する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고통의 원인과 직접 부딪혀 해답의 소리에 깊이 귀 기울여
苦痛の原因と直接ぶつかって、解答の声に深く耳を傾け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이 바로 고통에서
たくさんの悟りを与える。その悟りがまさに苦痛から

자유를 향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自由に向かった、本来の故郷に帰ってくる道を

안내해 주는 이해와 통찰이다.
案内してくれる理解と、洞察だ

- 브라이언 피어스의《동행》중에서 -
- ブライアン・ピアス<同行>より -

* 이해, 깨달음, 통찰, 사랑, 관심...
* 理解、悟り、洞察、愛、関心...

모두가 같은 뜻, 하나로 통하는 말입니다.
全てが同じ意味、ひとつに通じる言葉です

진정으로 깊이 바라보아야만 가능한 일들이니까요.
本当に深く眺めれば、可能なことだからです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深く眺める人が、本当の人生の同伴者です。

지나치듯 걸만 보면 어디가 아프고 괴로운지
度が過ぎるほど表面だけ見ればどこが痛くつらいのかを

그 원인과 해답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その原因と解答を直視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깊이 바라보아야만 보입니다.
深く眺めてこそ見えます

(2008년 10월 24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10月24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브라이언 피어스 Pearce Brian

동행1 [同行]

<1> [명사] <하다형 자동사>同行;道連れ;一緒に行くこと、またその人。
<2> [명사] <하다형 자동사>労役を共にすること。

2010년 7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1,018조회)

천 년의 바람
千年の風

잠시 숲에 가 보아라.
しばらく森の中に行ってみなさい

길이 없으면 칼날과 같은 풀을 밟고
道がなければ、刃のような草を踏み

길을 만들어 가 보아라. 그곳엔 바람이 있다.
道を作って行ってみなさい。そこには風がある

신라 천 년의 바람이 아직까지 불어오고 있다.
新羅千年の風が、いまだに吹いてきている

백제 천 년의 바람이 아직도 불어오고 있다.
百濟千年の風がまだ吹いてきている

- 최인호의《산중일기》중에서 -
- チェ・イノの<山中日記>より -

* 천 년의 바람만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 千年の風だけが吹いてくるではありません

천 년의 물소리, 천 년의 새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千年の水の音、千年の鳥の鳴き声も一緒に聞こえてきます

천 년의 풀향기, 천 년의 나무향기도 풍겨옵니다.
千年の草の香り、千年の木の香りも漂ってきます

잠시 짬을 내어 숲으로 달려가 보세요.
しばらく汗を出して、森で走ってみてください

천 년의 바람, 천 년의 향기로
千年の風、千年の香りで

온 몸을 씻어보세요.
全身を洗ってみてください

(2008년 9월 11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9月11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풍기다

<1> [자동사][타동사] (においや気配などが)におう;におわせる;漂う;漂わす。
<2> [자동사][타동사] (鳥類などが驚いて)四方に散る;また飛び立たせる

2010년 7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1,115조회)

심장을 건넨다
心臓を渡す

나는 명함보다는
私は名刺よりは

심장을 건네는 사람이기를 꿈꾼다.
心臓を渡す人を夢見る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たくさんの人に逢うことも重要だが

그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それよりは一人、一人に最善を尽くすことが

더 중요하다. 내가 그에게 건넨 명함이 마음이 담기지
さらに重要だ。私が彼に渡した名刺が心がこもって

않은 것이라면 결국 다른 수많은 명함들 속에
ないなら、結局他の数多い名刺の中に

묻혀버릴 종잇조각과 다를 게
埋もれて紙切れとかわら

없을 것이다.
ないだろう

- 김민우의《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중에서 -
- キム・ミウの<私は希望のセールスする>より -

* 명함은 자신의 얼굴이자 분신입니다.
* 名刺は自分の顔であり、分身です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건네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無条件にたくさんの人たちに渡すのはいいことでは有りません

심장을 건네는 마음으로 혼을 담아 건네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心臓をわたす心で、魂をこめてわたしてこそ、そうでなければ

많이 건네준 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たくさんわたすほど、損害になる場合も多いです

오직 한 사람에게라도 혼을 담아서 건네면
ひたすら一人の人にでも魂を込めて渡せば

그 한 사람이 백명 천명보다
その一人が、百名、千人より

더 큰 역할을 합니다.
さらに大きな役割をします

(2009년 7월 24일자 앙코르메일)
(2009年7月24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かみ切れ → かみ

종잇조각

20100707.txt

2010년 7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1,481조회)

어울림
似合う

“(커피 원두는) 충분히 볶지 않으면
“(コーヒー豆は)十分に煎らなければ

신맛이 나고, 너무 오래 볶으면 탄맛이 나죠.”
すっぱい味が出て、あまり長く煎れば炭の味が出るでしょう”

“사람은 볶기 전의 원두 같은 존재야. 저마다의 영혼에
”人は煎る前の豆のような存在だ。それごとの魂に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奥ゆかしい香りを抱いているが、それを外に出す

위해서는 화학반응이 필요하지. 그래서 볶는 과정이
ためには、化学反応が必要だろう。だから煎る過程が

필요한 거야. 어울리면서 서로의 향을
必要だ。似合いながら、お互いの香りを

발산하는 것이지.”
発散することだ”

- 스탠 톨러의《행운의 절반 친구》중에서 -
- スタンリー・トラーの<幸運の折半友人>より -

* '볶는 과정'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 '煎る過程'が苦痛であることができます

고도의 절제와 숙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高度の節制と熟練が必要なことでも有ります

원두든 사람이든 정말 잘 볶아야 합니다.
豆でも人でも本当によく煎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야 본래의 그윽한 향을 낼 수 있고
そうしてこそ本来の奥ゆかしい香りを出すことができ

멋진 어울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素敵な似合いも創造できます

최고의 향은 어울림에 있습니다.
最高の香りを似合うことができます

(2009년 1월 30일자 앙코르메일)
(2009年1月30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원두 [原豆]
[명사] (コーヒーなどの加工前の)実。
酸味 → さん
산미, 신맛.
탄: [炭]
<1> [명사] ‘석탄’의 縮約形。

<2> [명사] ‘연탄’의縮約形。

그윽-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奥ゆかしい;(場所·趣などが)奥深くて静かだ
;幽玄だ;(香りなどが)ほのかだ;ほんのりとしている。

(Stanley A. Toler)

2010년 7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1,191조회)

마음의 채널
心のチャンネル

마음은 수천 개의
心は数千個の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チャンネルがあるテレビのようだ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의 우리가
そうして私たちが選択するチャンネルのままに瞬間瞬間の私たちが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存在するようになる。憤怒をつければ私たちの憤怒になり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平和と喜びをつければ私たち自身も

평화와 기쁨이 된다.
平和と喜びになる

- 틱낫한의《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중에서 -
- テイク・ナット・ハンの<生きている今この瞬間が奇跡>より -

* 당신은 지금 어떤 채널에 맞춰져 있나요?
* あなたは今、どんなチャンネルに合わせていますか?

혹시 분노의 채널? 그렇다면 얼른 채널을 바꾸십시오.
もしかして憤怒のチャンネル? そうならすぐチャンネルを変えてください

평화와 기쁨의 채널? 그렇다면 '채널고정' 하십시오.
平和と喜びのチャンネル? そうなら'チャンネル固定'にしてください

충분히 감상한 뒤 다른 채널로 이동해 보십시오.
十分に鑑賞した後他のチャンネルに変えてみてください。

사랑, 감사, 열정, 꿈, 도전, 용기, 나눔...
愛、感謝、熱情、夢、挑戦、勇氣、分解...

또 다른 행복감이 안겨질 것입니다.
また他の幸せを胸に抱けるようになります。

그때마다 다시 채널고정!
そのときごとにまたチャンネル固定!

(2009년 7월 22일자 앙코르메일)
(2009年7月22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그리-하다
[자동사]{타동사·어 불규칙 활용} そうする;そのようにする。

ぶん-かい [分解]

[명사·사변격 활용 자·타동사] 분해.

1. [명사·사변격 활용 자·타동사]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잘게 나뉘. 또는 그렇게 나뉘.

20100709.txt

틱낫한 Thích Nhất Hạnh
(Thich Nhat Hanh)
テイク・ナット・ハン

2010년 7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345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민혁일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ミン・ヒョギル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쓸모 없는 존재는 없다
無駄な存在はない

지금 당신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今あなたは世の中の視線では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つまらなく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당신이 없어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しかしあなたがいなくては世界が回っていきません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未来について可能性が開かれている限り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あなたは世界で一番重要な存在です

미래를 잡으세요, 당신 것으로.
未来をつか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もので

- 권소연의 《마음을 다스리면 희망이 보인다》 중에서 -
- クワン・ヨンイの<心を収めれば希望が見える>より -

모든 것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全てのことは、自分自身から始まります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自分自身を愛してこそ、家族も、社会も、国家も

사랑스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愛する視線で、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今自身の姿かみすばらしく見えても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自分を暖かい視線で見守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니깐요.
あなたは、この世界にただ一人だけの存在だからです

좋은 글 주신 민혁일님께
いい文章をくださったミン・ヒョギル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좋은 주말 보내시고
いい週末を過ごして

오늘도 내일도 많이 웃으세요.
今日も明日もたくさん笑ってください

터키 이스탄불에서...
トルコ、イスタンブールより
보잘것-없다

[형용사] 何の値打ちもない;つまらない。[동 의 어]하잘것없다
다스리다

<1> [타동사] (国家·社会·家庭などを)治める;統治する;支配する。

<2> [타동사] (混乱した状態を)収める;鎮める;收拾する。

조라-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みすばらしい;貧弱だ;しがない;お粗末だ。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生き生きした気がない;しおれている。